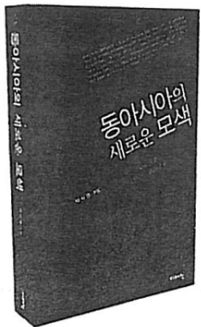


# 동아시아의 새로운 대장정

유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평문화  
2007 봄. 제 65집.



##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박사명 지음  
이메진 | 2006. 10. 20 | 478쪽 | 22,000원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동아시아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발전국가' 모델로 서구에 비취진 동아시아의 가능성은 외환위기로 인해 세계화의 실패 모델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역동적 전환과 발빠른 경제 회복은 오히려 경제적 동인만으로 동아시아 사회를 바라보던 서구적 관점을 수정하는 기회로 이어졌다. 동시에 동아시아 사회를 정태적 문화로 평가하던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반격으로 동아시아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해석이 시작되었다. 이 저서 역시 이러한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재해석의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 논문들을 정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각 논문들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기를 기획하고 집필된 것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13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모든 논문들은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 더 큰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 만큼 독자들을 동아시아로의 대장정으로 이끄는 데 손색이 없는 책이라 할만하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식민화, 근대화,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까지의 동아시아의 정치적 전환과 경제적 변동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거쳐 한국에 이르는 저자의 대장정은, 문화적 상대주의가 빠지기 쉬운 결정론적 함정들을 예의 주시하며 균형 있게 동아시아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동들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변동의 정치적 동인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저자는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와 역동적으로 상호 조응하는지에 관해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 않으며 설명해 내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들에 주목하여, 저자는 문화의 계속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시각을 극복하고 문화를 역동적 과정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저자의 시각은 서구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기존에 팽배했던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 결정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다. 특히 이 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동북아와 동남아가 서로 무관한 것으로 여겨 왔던 그 동안의 풍토를 비판하며, 동남아와 동북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통합적 시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한국의 동북아 중심주의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미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아직도 동북아 중심을 고집하는 한국의 '동북아 시대' 구호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이라고 저자는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한국이 동남아시아가 동아시아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견인하는 가교 역할을 주도하여야 하며,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축과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아시아의 패권주의 경쟁에서 한국이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묘안이라고 제안한다. 우리가 저자의 이 주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역학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저자의 주장은 동남아와 동북아 사이의 구분을 둘러싼 동아시아 내부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경계로 해석될 수 있다. 동북아가 동남아를 바라볼 때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우월성은 이미 '다르다'는 차이를 넘어 그들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차별과 배타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 수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북아 중심주의에 대한 천착의 이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화적 우월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보다 더욱 위험한 경계의 대상임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상호주관적 다문화주의를 위한 정치적 필요조건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범적 원칙과 경험적 규칙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다양한 문화전통의 유사성과 차별성, 계속성과 가변성에 포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호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저자의 문제의식은 특히 문명 융합의 화음은 은폐하면서 문명 충돌의 소음만을 강조하는 최근의 저작들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전제되는 경우에만 확보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자칫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역동적 변화 그리고 생동하는 역사성을 무화시키는 논제로 비추어질 수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저자의 이념적 지향 역시 하나의 서구적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각국의 정치문화 내부에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자유주의적 전통을 재발굴하는 작업을 저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신 저자는 각국의 문화와 제도를 보편적 형식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현하는

문화나 제도가 시공에 따라 또한 역사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저자가 인정한다면, 그러한 보편성은 의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또한 저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민주주의 이행 실험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대적 규범과 전통적 행태라는 이중적 상황'에 봉착함을 동아시아 실험의 실패로 규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전환의 위기'로 명명하고 저자는 이어서 결국 남은 대안은 자유주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명제는 '역사의 종언'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이들의 실험이 성공으로 완수되는 그 순간조차 우리는 전통적 특수성들이 거대한 뿌리와 같이 현대적 규범들과 병존하는 이중적 특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전환의 지연'보다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한 맹목적 현대화, 즉 비역사적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다.

저자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서로 '다름'들의 '어울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인 '같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전제는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결과물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내부적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적 오리엔탈리즘에 기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사회학박사.  
저서 :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등.